

6월 '보광의 달'

사람은 원래 행복할 수 없는 존재 이기신 하나님 · 부처님 안에만 있는 행복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요즘은 행복학이라는 과목이 대학에 존재한다. 행복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인식의 전환이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사실 자신의 생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생각에 꼬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지혜 얻게 돼

모든 생각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처럼 일어났다가 흩어진다. 무상(無常)하다. 덧없다. 항상(恒常)하지 않다. 이렇듯 깨달아 없다가 있고, 없다가 있다. 이걸 알면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나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덧없다. 그래서 사바세상이요 마귀세상이다. 이를 불교에서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이라고 한다. 우주는 생성되었다가, 머무르며, 파멸하고, 비어있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또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삶의 지혜를 얻지는 못한다. 소위 불교의 고승(高僧)들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병에 걸려 고통속에 죽어간다.



이기신 하나님 · 부처님 안에 있으면 행복을 누리게 된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통은 육신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벗어난 상태에 있으므로 육신을 벗어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

해탈과 열반

인간의 속박과 고통을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를 다시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온전한 행복을 얻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이 죽는 것을 열반에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죽음을 온전한 행복을 얻은 것으로 표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열반경에는 열반의 4가지 덕이 있는데 그를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常), 괴로움이 없고 평온한 낙(樂), 대아(大我) · 진아(眞我)의 경지로써 집착을 떠나 자유자재하여 결박이 없는 아(我), 번뇌의 더러움이 없는 정(淨)이다. 범부가 일으키는 네 가지 잘못된 견해, 즉 무상을 상(常), 괴로움을 낙(樂), 무아를 아(我), 더러움을 정(淨)이라고 사유하는 견해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상락아정 [常樂我淨] (시공 불교사전, 2003. 7. 30., 시공사)

따라서 사람이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죽지 않으며, 항상 쾌락 속에서 자유자재하며, 번뇌와 속박을 벗어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보광(普光)

사람이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 되면 불사(不死)의 영생체가 되며, 항상 즐겁고 한도 없는 쾌락 속에서 우주를 날아다니며 살게 된다고 구세주 조희성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진정한 열반의 뜻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보광하신 조희성님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조희성님은 1980년 10월 15일 완전한 하나님의 신으로 화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실체에 대해 UFO라고 말씀하시면서 빛덩어리라고 하셨다.

허면 보광하실 때까지 24년간 육신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천지공사를 행한 존재는 무엇인가. 본체의 분신체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언급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는 마귀의 보좌를 빼앗아 그곳에 앉아서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분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그 증거로 감로가 항상 내리고 있는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점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4)
“입에 재갈을 물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은 입을 봉해야, 입에 재갈을 물어야 은혜가 간직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은 양 나불대는 자는 마귀 종자 중의 마귀 종자인 것이다. 이 사람은 고도의 진리를 알고도 20년이 넘도록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입을 봉하는, 입에 재갈을 무는 자가 되어야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다. 입을 봉하는 것이 은혜 간직하는 비결이요, 형제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는 비결인 것이다. 또한 형제 몸을 하나님 몸으로 여기는 것이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시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팍 차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이룰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통일의 날, '단(檀)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통일의 성찬(聖餐), 삼신산의 불로초 '감로해인'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29분 판문점. 정전 이후 남북을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은 처음으로 만나 뜨겁게 손을 맞잡고 그 금단의 선을 두 번이나 함께 넘나들면서 나는 정담에서 시작된 판문점드라마는 감동, 감동, 감동의 연속이었다. 평화의 집 방명록에는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기록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북중·북미·한중일 정상회담 등 동서 냉전의 산물인 분단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들의 외교전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와 남북통일이 지구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왜 우리의 조상들은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며 그토록 간절히 통일을 소망해 온 것일까?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통일이란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최고 목표 하나에 도달함이다. 통일의 절대적 전제조건은 그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는 지식의 제공자인 '통일님'의 출현이다. 통일의 의인화(擬人化), 의인화(義人化)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단(檀) 같이 들지마라 주님이 또 보이셨다. 저랑 같이 부산제단 가신다고 고속철을 타고 계셨다. 의자에 몇 명이 같이 앉아서 과자랑 먹을 것을 주님이 잔뜩 사 오셔서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부산에 도착해서 옛날과 같이 예배를 직접 인도하셨다. 예배를 마치시고는 집무실에 조금 계시다가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다. 참 이상하다 하고는 옥상에 같이 올라가 보니 지방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도 밥 먹자고 하시면서 신발을 벗으시고 옥상의 어떤 방에 들어가시더니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후 잠이 깨었다.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다. 제가 일어나서 한참 동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신들린 사람같이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다. 번뜩 정신이 들면서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다' 싶어 얼른 꿈꾼 내용을 정신없이 메모를 했다.

그러나 제가 더 놀란 것은 수요일 본부제단에서 아침 예배를 보는데, 주님께서 꿈에서 본 그대로 옷과 넥타이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예배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마치 꿈에 주님을 뵈는 것 같은 느낌 그대로였다.*

다. 백성들의 궁극적 소원을 두루 이루어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치행위로서의 '통일' 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 하여, 통일은 구세주를 통하여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답을 제 공하는 '인문학의 완성'에서 시작하여, 정상(正當)의 확고과 정상(頂上)의 종교가 한목소리로 인류화합과 영원 무궁 불사영생의 진리를 구현 인류구원에 성공함으로써 완성된다.

분단의 태극(太極)을 통일의 무극(無極)으로 이끄는 구세주 출현 염원이 애국가(愛國歌)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아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천손민족 단 지파의 후손들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1980년 10월 15일 「구세진인 정도령」 출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정도령」과 함께하는 통일을 향한 생각의 첫걸음은 6천 년 전 인류에게 최초로 금단(禁斷)의 사선(死線)이 그려졌던 예멘동산 선악과 사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선악과인 마귀신에게 점령당함으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 마귀신이 다름 아닌 인간 개개인의 '나' 라는 주체의식이다. 모든 인류는 선악과 때문에 죽었고, 현재도 죽어가고 있다.

남북통일의 실현은 모든 대한사람들이 선악과마귀가 되는 죽음의 핵 '나' 라는 주체의식을 떨고 불사영생의 극기승재(통일님)로 부활하는 것이다. 평화통일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이루는 正道는 「인간의 비핵화, 요, 그 통일의 성찬(聖餐)은 평양방면이 아닌 불사영생의 묘약 삼신산의 불로초 감로해인(甘露海印)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군산제단에서 4 월달에 내린 이슬성신 (박준구 장로 촬영)

이영자 총재 간증담 생시와 똑같이 꿈속에 오신 구세주

요. 아 당신이 없어지니까 죽었다고 이렇게 진정을 한 것 아닙니까? 아 글썄, 나씨, 서씨 등 진정인들이 죽은 당신이 2006년이나 2008년도에 온다고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다고 대검찰청에 진정을 했답니다. 허 참,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요, 아니 당신이 없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로 말씀을 드렸다. 그랬

“나 안 죽었어. 사람같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야. 무죄도 내가 만든 거야. 병든 인간의 육신을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시반본한 거야”

더니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나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단상에서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니다' 고 이야기를 해 왔잖아? 나는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을 모신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그래, 뭐라고 이야기 했어?” 라고 물어 보셨다.

그래서 “제가 뭘 제대로 알아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주님 보광하신 것을 잘 설명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주님 돌아가신 문제는 예언서나 경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여기에 적힌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단에 물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부천남부경찰서에 제출한 격암유록 요약한 내용과 주님께서 보광하신 것을 잘 설명한 '보광하신 주님'이라는 자료를 같이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주님께 서 읽어 보신후 “그래 잘 했어. 이것을

단에서 강의하도록 해.” 그러셨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 서서려다 다시 앉으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죄를 전부 해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듭난 완전무결한 의인이라는 의미야. 무죄판결 나게 한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감옥을 나와서 병원에 간 것은, 죄를 담당하느라 병든 인간의 육신

을 완전히 벗어나서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원시반본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나는 본인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변신의 역사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이야. 그래서 내가 사인불인천신강(似人非人 天神降)이라고 했잖아? 내가 단상에서 한 설교말씀 당신 못 들었어? 내가 평소에 단에서 한 말을 잘 생각해 봐. 그리고 내가 제단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나와 같은 얼굴로 만든다고 했어.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빛으로 변할 수 없어. 당신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단에 매일 나와 열심히 예배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요, 감로 이슬성신이 항상 내리고 있어.” 그러셨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신이 나서 “맞아요, 제가 3층 공장에 갔을 때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보여드렸다. 그

사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화장실에 가셔서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셔서 또 안에서 예전처럼 피를 쏟으시나 걱정이 되어 화장실로 가서 문을 여는데 안으로 문이 잠겨 있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비몽사몽 잠이 깨어 저도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또 잠들었는데 다시 주님 꿈을

잠이 들자마자 주님이 또 보이셨다. 저랑 같이 부산제단 가신다고 고속철을 타고 계셨다. 의자에 몇 명이 같이 앉아서 과자랑 먹을 것을 주님이 잔뜩 사 오셔서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부산에 도착해서 옛날과 같이 예배를 직접 인도하셨다. 예배를 마치시고는 집무실에 조금 계시다가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다. 참 이상하다 하고는 옥상에 같이 올라가 보니 지방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도 밥 먹자고 하시면서 신발을 벗으시고 옥상의 어떤 방에 들어가시더니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후 잠이 깨었다. 시간이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다. 제가 일어나서 한참 동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신들린 사람같이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다. 번뜩 정신이 들면서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다' 싶어 얼른 꿈꾼 내용을 정신없이 메모를 했다.

그러나 제가 더 놀란 것은 수요일 본부제단에서 아침 예배를 보는데, 주님께서 꿈에서 본 그대로 옷과 넥타이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예배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마치 꿈에 주님을 뵈는 것 같은 느낌 그대로였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생시처럼 꿈에 나타나셨다. 평소 아침 제단 나가는 시간 제단에 도착하여 주님 집무실에 들어서는데 주님께서 먼저 당신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아계셨다. 소파에 앉으셔서 들어오는 저를 빙긋이 웃으시면서 쳐다보시고는 “고생이 많지? 여기 와 앉아.” 하셨다.

꿈속의 주님께 꾸밈하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꾸밈하는 식으로 “고생이 많고 뭐고, 아 주님, 이 양반 어디 갔다가 오셨수. 왜 자리를 비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시우? 나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 내가 뭘 안다고, 할만한 사람을 시킬 것이지 이게 뭐요? 내가 감방에 들어가는 것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면서 막 조아 부쳤다. 주님께서 그래도 빙긋이 웃으시면서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그러시면서 메모지를 내어 적으려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꼭 말씀드리다가 마지막에 있는 끝날 무렵 지난 주 토요일 부천남부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승리제단 피해대책협의회’라는 곳에서 온 ‘이영자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는 협박편지를 읽어 드렸다. 주님께서 편지 내용을 한참 동안 다 들어보시더니 “편지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마귀가 그들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게 되어 있어. 마귀 편에서 있는 사람이면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 하셨다. (중략)

그리고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조사 받은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아이고 나 혼났어